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_ 2018. 1

Cheongju industrial complex happy house(The government-led rental housings for people)



발주자 청주시청 / 설계자 조영돈 KIRA | (주)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정현석 KIRA | 신성종합 건축사사무소(주) / 설계팀 목경웅, 박상은, 구송이, 신새임, 김희연, 김수연, 승가연, 안정현, 박다보미, 장일영, 임정진, 이상수, 이태호, 신승우, 최희진, 박윤규, 오경진, 김수진 / 대지위치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146번길 20 (송정동), 공단로 56(복대동) / 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 대지면적 송정동 10,623㎡, 복대동 1,870㎡ / 건축면적 송정동 3,386.86㎡, 복대동 1,110.47㎡ / 연면적 송정동 46,456.67㎡, 복대동 11,967.84㎡ / 건폐율 송정동 31.88%, 복대동 59.38% / 용적률 송정동 335.72%, 복대동 397.73% / 규모 송정동 지하 2층, 지상 29층 / 복대동 지하 3층, 지상 21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마감 외부마감재 : 로이복층유리, T30 석재마감, 외부용 수성페인트, 스위트마감 · 내부마감재 : 테라조, 에폭시, 천연대리석, PVC 천정재



도시와 산업단지 이동의 관문이 되는 단지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도시에 편입된 산업단지는 환경적, 미관적, 도시적 측면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다. 도심형 산업단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변단지와 상생하도록 유도해 도시와 산업단지가 동반성장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송정동 : 자연, 문화, 경관이 어울려 가치를 더하는 [3+Multi-story]

송정동 140-41번지는 청주산업단지와 대장지구의 경계점이다. 도시와 산단 이동시 관문이 되는 곳인 위치적 장점을 이용하고, 주변환경을 단지 내로 확장해 '산업단지 내 주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그 방안으로 첫째, 단지 초입의 상징적인 경관형성으로 산업단지 이미지를 1+ 하며, 둘째, 산업단지의 삭막한 이미지 및 환경의 개선으로 정주환경을 1+ 하고, 셋째, 산업단지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상생프로그램으로 지역활성화를 1+하는 3+ Multi-Story를 제안한다.

복대동 : 자연, 사람, 도시가 어울려 가치를 더하는 [3+Signature]

산업단지와 도심주거지의 경계부에 위치해 있는 대지의 특성은 입주민의 일상과 더불어 산업단지 근로자와 이웃 주민들의 삶에 대한 도시적 접근을 재고하게 한다. 이에 복대동 100-15 행복주택은 대지의 입지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경계의 재해석을 통한 산업단지 내 주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첫째, 자연적 요소 도입을 통한 생동감 있는 단지환경과 이미지를 구축하여 산업단지 이미지를 1+하고 둘째, 도시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열린 배치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통과 만남의 기회를 1+한다. 셋째, 입주민·지역주민을 고려한 복합적인 단지 계획으로 더불어 살아가며 삶의 질을 1+하는 3+Signature를 제안한다.





송정동 배치도



복대동 배치도